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3월 30일(금)

(음력 2월 14일)

Пятница

30 марта 2018г.

№ 12(11677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25일(일) 케메로워 <겨울 체리>쇼핑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64명이 숨졌다. 그중 어린이들이 많았다. 러시아 전국에서 자발적인 추념모임들이 이뤄졌다. <노보스치>통신사 사진)

사할린에서도 케메로워 쇼핑몰 화재 희생자 추념

3월 25일(일) 케메로워 <겨울 체리>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600m² 면적이 전소되었다. 27일 현재 인명피해에 대한 공식 집계 따르면 사망자 64명(희생자 중 41명은 어린이), 부상자 67명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7일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했다.

쇼핑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러시아 수많은 지역에서 자발적인 추도행사들이 이뤄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정교회 성탄성당에서는 27일 13시에 추선식이 거행되었고 저녁에는 사할린주 내 모든 성당들에서 추모 예배가 진행되었다. 같은 날 20시부터는 수많은 시민들이 슬라와(영예) 광장에 모여 비탄에 잠긴 어머니 석상에 생화를 헌화하고 추모의 촛불을 밝혔다. 여러 소셜네트워크에는 <케메로워, 우리는 함께>라는 표어 아래 애도의 글을 올렸다.

3월 28일을 케메로워 화재사건 희생자 애도의 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조기를 울리며 애도를 표했다.

(본사 기자)

사할린, 한국 영화제 개최

오는 4월 13-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티몰)에서 한국영화주간이 개최된다. 사할린출장소 협조 아래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의 주최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한국 영화 5편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는 13일 18:00 개막작 '군도'를 시작으로, 14일 12:00 '연애의 온도', 14:10 '소원', 16:25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18:10 '평양성'이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티켓은 다음 주 월요일 12:00부터 시티몰 영화관 매표소에서 선착순 배포된다. (티켓문의: 8 (4242) 70-85-75) 이에 대해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가 전했다.

사할린주 체육관광·청소년정책부 2017년 사업 종결, 2018년 계획 발표

지난 28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체육관광·청소년정책부 간부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체육관광·청소년정책부의 2017년 사업보고와 2018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케메로워 화재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8가지 의제(:공공기관 사업의 핵심 지표, 스포츠시설 공사, 체육문화와 스포츠·청소년정책,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 준비사항, 젊은 가정의 생활여건 향상과 스포츠 학교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전환에 따른 국가 지원)가 올랐는데, 우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은 <고르니 워스두흐>스키단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3면에 계속)

단신

러시아연방 정부, 제1회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러시아연방정부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총리는 사할린에서 개최될 제1회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대회의 실행과 준비로 준비조직진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유리 트루트제브 부총리, 부위원장으로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러시아연방 체육부 파벨 콜로브코브 장관이 임명되었다.

러시아 체육부와 사할린주 정부는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3개월간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진행, 준비 조직과 관련한 주요행사계획을 확정하고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동계 <아시아의 아이들> 참가 신청서는 2018년 10월 1일까지 접수하며 각 대표팀들의 선수 인원은 84명으로 8개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게 된다. 경기 참가국은 21개국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네스체로브 부수상, 사임 제출

사할린주 정부 드미트리 네스체로브 부수상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4월 2일부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에 경제 분야(재정, 관광 등)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부수상은 연말부터 농업, 투자, 교통 분야와 <극동 헤타르>프로그램의 감독을 맡아왔다. 네스체로브 부수상은 2016년 1월부터 주정부에서 근무했다. 그의 권한 대행으로는 주정부 부수상 알렉세이 벨리크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 독감과 급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발병률 감소

지난 주에 사할린주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발병률이 2배로 감소해 이전 38건에 비해 새로이 22건으로 기록돼 감소했다고 27일(화) 있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소비감시청의 전염병 감독부장이 밝혔다. 현재는 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독감 증상은 없으나 호흡기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일에 주내에는 호흡기질환 독감은 감소했으나 쿠릴 지역과 북쿠릴 지역에서는 독감 감염이 임계치를 조금 넘는 정도로 기록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7세-14세의 유소년들에게서 감염 사실이 관찰되고 있다.

이철주 문화기획자, <에트노스>에 삼고무 기증

이철주 문화기획자(한국)가 3월 27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를 방문하여 약속한 삼고무 1세트를 기증했다. <에트노스>학교 안나 위로호와 교장과의 면담에서 그는 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계획도 소개하여 논의했다.

2014년부터 사할린 관련 사업을 해온 이철주 프로듀서는 주정부, 주한인회, 주미술박물관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이번 방문 중에 <에트노스>학교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전수가 있었다. 한편 이철주 문화기획자는 사할린주한인회로부터 2018 광복절 행사 총감독 위촉을 받았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문화생활

사할린 시인의 새 시집 발표회, 모스크바에서 거행

지난 27일(화) 모스크바에서 허남영 시인이 허남영 사할린 시인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전 2권으로 된 시집을 발행하기까지는 수차례의 애로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여름에 시집 출판 행사에 대한 홍보가 있었지만 출판사의 문제로 출판이 미루어져 이제야 작품이 제대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소련과 러시아의 유명한 동포작가

아나톨리 김은 책 출판 기념회에서 허남영 시인이 걸어온 인생의 노정을 소개하면서 시인의 남다른

의 여러 노래를 기타반주에 맞춰 들려 주었다. 특히 시인이 부른 노래 '대나무' ('막내동이 시집 가던 날')는 본인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여운 여동생의 잔치상을 장식하기 위해 동지선달에 일반 소나무 가지가 아닌 대나무를 찾아 산을 오르내린 내용을 주제로 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고스란히 반영한 아름다운 곡과 가사로서 관객들의 심정을 사로잡아 대절찬을 받았다. 지면에 이 노래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새 시집은 현재 500 부

가 발행되어 사할린에는 150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시집 발표회 공식행사는 시인의 질의응답과 시집 사인회로 마감하였고 이어서 사할린동포연합회와 자리를 함께 한 저녁 모임에서 재미나는 이야기로 밤 깊어가는 줄 몰랐다. (모스크바에서 김수만)

의 여러 노래를 기타반주에 맞춰 들려 주었다.

특히 시인이 부른 노래 '대나무' ('막내동이 시집 가던 날')는 본인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여운 여동생의 잔치상을 장식하기 위해 동지선달에 일반 소나무 가지가 아닌 대나무를 찾아 산을 오르내린 내용을 주제로 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고스란히 반영한 아름다운 곡과 가사로서 관객들의 심정을 사로잡아 대절찬을 받았다. 지면에 이 노래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새 시집은 현재 500 부



가 발행되어 사할린에는 150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시집 발표회 공식행사는 시인의 질의응답과 시집 사인회로 마감하였고 이어서 사할린동포연합회와 자리를 함께 한 저녁 모임에서 재미나는 이야기로 밤 깊어가는 줄 몰랐다.

(모스크바에서 김수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과 부회장 주두마 표창장을 받아 시노인정 모임을 찾아

지난 2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무실에서 정례적으로 노인정

노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춤도 춘다. 시한인회 측에서는 항상 점심식사를 준비해온다. 최근에는 할머니들을 위해 노

물론 이날 시한인회 운영위 위원들을 비롯한 여성부 회원, 주여성회 회원 등이 노인정을 찾았다. 2004년부터 시한인회에서 노인정 첫 모임이 열렸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인정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 그 동안 시한인회 회장도 3번 (박정자, 박종철, 현림종환) 바뀌었지만 회장 모두가 노인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이날 시한인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두마 나탈리아 즈다카예와 의원이 림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과 안영수 시한인회 부회장겸 노인회장에게 주두마 표창장을 수여했다. 즈다카예와 의원은 두 분이 업적에서도 공로를 세우고 또한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정 어르신들을 잘 챙긴다고 강조했다.

노인정 어르신들을 대표하여 87세의 전채련 할머니는 림종환 한인회장과 안영수 노인회장에게 축하하며 이들이 항상 할머니들을 기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데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노인정 모임일에는 할머니들이 보통 아침 10시부터 모이기 시작해 얘기도 나



인들을 위한 운동법도 가르치고 여러 손님들을 모시기도 한다.

이번에 특별 손님들로 알타이 민속 음악을 하는 세 명의 젊은 남성들이 초대되었다. 이들은 할머니들을 위해 알타이 민요부터 시작하여 현대 노래까지 불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했다. 할머니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고 시한인회 회원들을 비롯해 노인정을 찾은 손님 모두가 기뻐했다.

이날 노인정에는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여성회 김윤희 회장, <소망>어린이 창작협력회 김춘경 회장, <엘렉트로사흐몬타주>회사 정해성 사장, 세계한민족 여성재단 권환자 이사, 새고려신문사 배익토리아 사장 등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본사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학생들, 주 컨퍼런스 <마법의 문으로 들어가라>과학연구에 참가

동물행동학의 제10회 주 학생 실용과학 컨퍼런스 <마법의 문으로 들어가라>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할린 동·식물원의 주최로 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에 11개 지방자치체를 대표하는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린 연구가들은 단기간 자신들이 작업한 과학적 연구들을 심사평가에 제시하게 된다. 올해 생태학과 동물행동학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하여 인기 있는 분야임을 톡톡히 입증했다.

올해 <식물학>부문에서는 식충식물과 그들의 행동양식, 식물의 성장에 고전음악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소개된다.

컨퍼런스는 과학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획득한 과학적 정보를 분석하고, 시험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끊임없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성장 및 향상시킨다.

우수 과학기획의 제작자는 모스크바 동물원이 개최하는 만테이펠 유·청소년 자연과학자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3월 31일 14시에는 컨퍼런스 폐회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우승자 시상식이 진행된다고 주 문화고문서보관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едставят научные труды на област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ойдите в волшебные двери"

Х научно - 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школьник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этологии "Войдите в волшебные двери" пройдет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 29 по 31 марта. Участие в ней примут около 40 школьников из 11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Ю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едставят на суд жюри свои научные труды, над которыми работали не один месяц. В этом году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стали этология и экология, где набралось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в номинации "Ботаника" представлены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работы о хищных растениях и формах их поведения, о рол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развитии растений.

Конференция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етям не только проводить научно -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о 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олуч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оводить опыты и эксперименты, что непременно повышает и развивает 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Автор лучшего научного проекта отправится в Москву на конкурс юных натуралистов имени Мантейфеля,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ует и проводит Московский зоопарк.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закры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31 марта в 14:00,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승리>기념종합전시관, 대조국 전쟁 기념 창작경연대회 개최

<승리>기념종합전시관은 <꽃들도 추웠을 것이다> 문학·예술창작경연대회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를 권한다.

대조국 전승일 73주년 기념 문학창작경연을 2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한다.

행사는 일반교육기관에서 연령별 3그룹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 초등 그룹(7-10세)
- 중등 그룹(11-14세)
- 고등 그룹(15-17세)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참가 신청서는 필수며, 문학수필, 창작시, 작문(단편) 형식의 원고여야 한다.

문학창작품에는 대조국 전쟁 사건들과 연관된 주제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경연 방식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념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술경연은 대조국 전쟁 시작일인 1941년 6월 22일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된다.

미술경연의 참가 연령은 5세부터 18세까지고 2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수공예품, 회화와 스케치 등 다양한 기법의 작품을 접수하고 있으며 미술경연에 대한 사항은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작품 발송은 메일 mmk.konkurs@mail.ru로 가능하다고 <포베다>기념종합전시관 측이 전했다.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проводит творческие конкурсы, посвященны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конкурсах "Казалось, было холодно цветам".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 73-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Он проходит с 22 февраля по 22 июн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уча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 трем возрас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 младшая группа (7-10 лет);
- средняя группа (11-14 лет);
- старшая группа (15-17 лет).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ы заявка участника, письменная работа в форме литературного эсс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ли сочинения (рассказа).

В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ах должна быть отражена тема, связанная с событиям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словиях и правилах конкурса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узея.

Все работ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ходят по тематике, связанной с датой начал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 22 июня 1941 год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15 февраля по 22 июня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от 5 до 18 лет. (8면에 계속)

예술학교 무용단 경연대회 개최

지난 27-28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프리스타일> 무용단 경연대회가 열렸다.

27일(월) <로지나> 문화회관 무대에는 이번에 22개 보충교육기관(예술학교)의 무용단들에서 학생 283명이 출전해 아둥, 고전, 민속, 현대춤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자



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기관 4곳과 비코브,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네웰스크, 포로나이스크, 트로이츠코예, 티몐스코예와 홈스크 예술학교의 학생들이다.

28일에는 교육자들을 위한 활동교실과 원탁 모임, 그리고 오후에는 갈라공연과 시상식이 있었다. 2등과 3등은 <에트노스>학교 무용단들이 수상했다.

(취재: 이에식 기자)

2018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 회의, 모스크바서 개최

2018 유라시아지역 공관장 회의가 3월 16일 모스크바 소재 주러시아대사관(대사 우윤근)에서 열렸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지역 공관장 15명과 외교부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정부의 대유라시아 협력 강화 방안 및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이행방안, ▲유라시아지역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외교부 혁신비전 및 재외공관 혁신과제 이행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지역 공관장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변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유라시아간 외교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서부유라시아 국가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신북방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한-러시아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급 소통강화로 신뢰관계 격상, ▲9개 다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극동 개발 협력과 4차 산업 혁명 등고 연계된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 협력 확대, ▲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외교다변화 대상이자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고위인사 외교 강화와 ▲기존의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건설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양측의 공통 관심사인 사회, 경제 개혁을 위한

협력 확대 및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의 건설적 발전방향 운영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서부 유라시아국가들과는 해당 국가들의 양자간 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 정보통신기술 등 국별 특성에 맞는 실질협력 강화 및 양자 정례협의체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북방경제협력 비전과 전략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라시아 지역 현지공관의 역할 및 기여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유라시아 지역의 사회구조 및 교민구성 등 특수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건사고 예방 활동 등 동지역 재외국민 보호 및 맞춤형 영사서비스 개선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을 맞아 유라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치를 도시들에 대한 임시 영사사무소 설치 및 사전 유의사항 안내 등 우리 방문객과 응원단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본부-공관 및 공관들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 함께한 공관장은 주러시아대사, 주몽골대사, 주벨라루스대사,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주아제르바이잔대사, 주알마티총영사,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주우크라이나대사, 주이르쿠츠크총영사, 주조지아트빌리시분관장, 주카자흐스탄대사, 주키르기즈대사, 주타지키스탄대사대리,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등이다.

(재외동포신문)

전시를 통해 다도의 의미를 이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3일(금)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다기> 전시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가을철에 했으면 하는 바램도 표명했다.

전시회 큐레이터인 사할린주 미술관 하이 올가 동양국 예술 연구실장은 극동

술잔, 다기 등, 사할린주민들의 개인 소장물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주재 히라노



전시회 개막에서 사할린미술관과 처음으로 전시회를 한 모스크바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 알렉산드르 세도브 과장은 "사할린 동료들이 제안한 이 기획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 가운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음 프로젝트는

나라들에 확산되어 있는 다도 문화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번 전시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모스크바 전문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사할린미술관이 소장한 한국과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의 다기 등 작품, 동양박물관이 출품한 중국, 일본 등 우아한 물건,

류이찌 총영사,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문화재단 관계자, 미술가, 미술을 좋아하는 일반인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시회를 방문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다기> 전시회는 5월 3일 까지 개장된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체육관광·청소년정책부 2017년 사업 총결, 2018년 계획 발표

(1면의 계속)

주 체육관광청소년부 세르게이 부렌코브 장관은 2017년에 체육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수는 42,6%(2016년 비해 2,1%증)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점에서 체육문화 및 스포츠·청년정책의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주 예산에서 스포츠 분야에 33억 루블리를 책정했었고 2017년에는 이 자금이 43억 루블리로 상향 책정되었으며 체육산업의 투자자본도 27% 향상된 20억 루블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사할린에 20개 이상의 스포츠 대상시설을 건설 및 개건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특히 일부 기획한 건축시설들은 2019년 <아시아의 아이들>동계국제스포츠대회에서 이용하게 되므로 특별한 책임이 부과되었다.

스포츠산업 직원들의 협력으로 현재 스포츠시설 건설은 47.9%가 확보되었다.

안톤 자이체브 사할린주정부 부수상은 지방자치체에 스포츠시설 공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지방자치체 스포츠시설공사에는 주예산에서 6억이 할당되었으나 82%만 개건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

2017년에 20개 스포츠 시설대상의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그중 체육관 3곳, 바이애슬론 종합단지 제1차 공사, 제2차 스키산책로, 에어다이나믹 스포츠단지, 1차 <코스모스>경기장 개건, 스미르니흐 운동장 1차 공사, 토마리 동계스포츠센터, 포로나이스크에 수영장과 놀이시설을 겸한 보건체조종합단지, 고르노자워드스크 마을에 노년 스케이트장 등 주내 7개 지방자치체 9곳에 일반 스포츠 경기장이 완공되었다. 그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스케이트 훈련장 건설 진행, 체조 훈련장 기획이 시작되었다. 이외에

도 스포츠 시설대상의 건설이 오하,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크지역은 완성되었고, 샬초르스크, 보스냐코브에서도 진행되었다.

2017년에 사할린에서 26개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가 138회 치러졌다.

사할린지역선수들은 국제, 전국, 그리고 지역급 경기에 326회 참가하고 메달 341개를 획득했다.

2세부터 90세까지의 사할린주민 2만여 명이 지역 경기(<러시아 스키>, <전국 민족 크로스>, <주황의 공> <미니 축구> <러시아의 돛> 등)에 참가했다.

<스키를 학교로>지역 기획으로 15개 일반학교의 학생 410명이 참가한다.

현재 주내에는 스포츠키관 28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40개의 스포츠 종목을 가르치고 있다. 유·청소년스포츠학교 학생 수는 현재 약 1만600명 정도다.

2017년에 2977 명이 여러 스포츠 자격증을 따냈는데 그중 10명은 스포츠 최우수전문자격과 116명은 스포츠 우수전문자격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스포츠교육기관들에서는 441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432명은 훈련사범이다. 주내에는 99개의 스포츠 종목이 진흥되고 있으며 주 스포츠연합회는 59개인데 56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2017년에 32개 지방 스포츠 단체들은 주예산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 현재 러시아 국가대표팀들에 사할린의 선수 64명이 선정되었다. 이는 2016년보다 거의 2배 더 많은 수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아시아 아이들> 첫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준비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관계자들은 이 대회 자원봉사자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갔다.

(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부 홍보실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иаспора

Наградили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досуга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февраля 2004 г. при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уществует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торый собирается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Его посещают в основном бабушки, которым уже давно за 75.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бабушек,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71, чтобы пообщаться, попеть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потанцевать и просто встретиться с друзьями. Здесь их не только приветливо встречают, но и накрывают обеденный стол. Эта традиция пошла от прежн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ак Ден Дя, при которой и был открыт этот клуб. Традицию продолжил следующ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Ден Чер, а более трех лет назад эстафету подхватил нынешн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Члены город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ра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ить досуг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водят занятия по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е, организуют встречи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В этот раз в гости к корейским бабушкам пришли артисты с Алтая,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еликолепное горловое пение, отличное вла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и по-настоящему зажгли бабушек современными песнями так, что те не удержались и пустились в пляс.

Именно организация досуга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ала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аргументов в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председателя ЮСМОК Лим Ден Хвана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я Ан Ен Су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виновникам торжества вручил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Ждакаева, которая отметила их достижения и награды. В особенности ее пораз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награды по рационализаторским предложениям, которые сделал Ан Ен Су.

Теплые слова поздравлен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розвучали и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благодарили за чуткость, теплое отношени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ения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ш.корр.)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Чайники приносят в дом счастье

23 марта 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Приносящие счастье в дом: заварные чайники».

Это первый на Сахалине совместный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г. Москвы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Цель проекта - познакоми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зрителя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ым искусством в контексте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в связи с чай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и их философским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м своеобразием.

— Для нас большая че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проекте, идея которого принадлежит сахалинским коллегам. Надеюсь, что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успешно продолжено, — сказал на открыти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Седов. — Тем более что в фондах музея есть коллекции коре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бранные в прежние годы во врем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экспедиций на Сахалин.



У музея Востока есть намерение продолж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музеем.

Представив своих коллег из музея Востока Галину Шишкину и реставратора Юрия Березина,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ли экспонаты из Москвы и помогали формировать выставку,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по «Искусству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льга Хай, поведала, что специальные чайники для чая стали популярны в Китае, Японии, Корее в XV-XVI веках в результат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чаепития.

Чайная церемо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чая начались в Китае в период Тан, сначала среди буддийского духовенства, потом мирян. С буддийскими проповедниками оно достигл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затем Японии.

Камерная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заварные чайники и сосуды для вина и воды XIX-начала XX веков, созданные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изделия китайских мастеров Иси-на, керамика Сацума, фарфор Кутани и т.д.). Это чайники повседневного обихода со скромной росписью, авторские изделия известных керамических мастерских, экспортные образц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европейского рынка. Также экспозиция дополнена корейскими чайными сервизами и предметами из собр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да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и личных коллекций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ставку украсили графические листы Мидзуно Тосиката из альбома «Повседневная чайная церемония».

Интерес к выставке проявили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юити Хирано,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им Джун Хван, художники и просто любители искусств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3 мая.

Виктория Бя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13 – 14 АПРЕЛЯ

КИНОТЕАТР «САМЫЙ ЛУЧШИЙ КИНОТЕАТР»
ул. 2-я Центральная, 1-Б, ТРК Сити Молл, 3-й этаж

1. Кундо: эпоха угрозы (13 апреля, пятница 18:0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37 минут - Жанр: боевик

- Режиссер: Ан Чжон Бин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5+

1862 год - правление короля Чхольчжона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Эксплуатация бедняков дворянами и алчными чиновниками достигла своего апогея. Это история о благородных разбойниках клана Чхусоль с горы Чирисан, стоящих на стороне бедного, бессильного народа в деле нелегкой борьбы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2. Самая обыкновенная пара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2:0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12 минут - Жанр: романтическая мелодрама

- Режиссер: Но Док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8+

После слов «Мы расстаемся...» чувства разгораются еще больше. Коллеги по работе Донхи и Ёнын тайно встречаются уже 3 года. Скрываясь от посторонних глаз, они безумно любили друг друга и вот сегодня...они расстались. Следующим утром они снова встречаются, но на сей раз как обычные коллеги по работе.

3. Совон, что значит «Надежда»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4:1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23 минут - Жанр: драма

- Режиссер: Ли Чжун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2+

История, затрагивающая самые болезненные темы.

В одно дождливое утро по дороге в школу девочка Совон встречает пьяного незнакомого мужчину, который похищает ее и творит с ней ужаснейшие вещи ...

История семьи, затронувшая сердца миллионов зрителей.

4. Дорог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изнь»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6:25)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90 минут - Жанр: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 Режиссер: Ан Чжэ Хун, Хан Хе Чжин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0+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основанный на трех знаменитых корейских коротких рассказах.

Смеяться, даже когда грустно.... Жить, даже когда мучительно больно. История жизни троих людей.

5. Старая крепость Пхеньян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8:1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17 минут - Жанр: комедия, военный

- Режиссер: Ли Чжун Ик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2+

События этого комедийного фильма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в те стародавни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уществовало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Пэкче и Силла. Генерал Силла Ким Юсин вознамерился объединить все три. Так начинается битва за крепость Пхеньян, в которой встретились войска Силла и Когурё.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побывал с не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в КН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нанёс не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в Китай в период с 25 по 28 марта. Как сообщило в среду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визит состоялся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который оказал «тёплый приём» Ким Чон Ыну и его супруге Ли Соль Чжу. В соста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были такж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ПК Чхве Рён Хэ,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и Ён Хо,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Единого фронта Ким Ён Чхоль, заведую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делом ЦК ТПК Ли Су Ён и други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им Чон Ына в Пекине встретил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итайских властей. По данным ЦТАК, в Доме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в Пекин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Ким Чон Ына и Си Цзиньпина.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ситуации в мире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Китая (CCTV),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и Цзиньпин отметил, что визит Ким Чон Ын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большом значении, которое КНДР уделяет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с КНР.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Китая и Трудовая партия Кореи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изм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гласил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Си Цзиньпин дал на это «полное согласие», сообщает ЦТ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предложил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на основе активизации контакт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развёртыва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с особым акцентом на мирное развитие и благодаря усилени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Синьхуа.

В РК началось бесплатн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19 марта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начала бесплатн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туризм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а восьми языках. Услугой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 номеру 1330 в любое время суток. Ранее, если позвонить по этому номеру из-за границы или внутр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о телефону, приезженному иностранцем из своей страны, это приводило к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затратам на связь из-за роуминга. Теперь звонок можно сделать из любой точки мира бесплатн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ов Visit Korea, через которое можно произвести звонок бесплатно в зоне Wi-Fi. Оператор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переводческие услуги для туристов, туристическ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инять заявления о неудобствах и других ситуациях, а также помочь в разрешен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вопрос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нной услуго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210 тыс. раз, из них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шлось 141 тыс. звонков.

В РК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больных туберкулёзом иностран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ходящих лечение туберкулёза.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24 марта членом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действия Ин Чжэ Гыном по случаю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борьбы с туберкулёзом.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 период с 2009 по 2017 год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иностранцев выросло в 2,7 раза, а сопутствующие этому страховые выплаты выросли в 4,5 раза до 2,6 млн долларов. В отчётах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цев, больных туберкулёзом, выросло с 587 человек в 2008 году до 2.123 человек в 2016 году, то есть, в 3,6 раза. Для сравнения,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сократился с 33,5 тыс. до 28,7 тыс. человек.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допускать случа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заезжают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 целью лечения от туберкулёз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 марта 2016 года обязало граждан 19 стран до получения долгосрочной виз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результаты пол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6 год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 данной болезнью,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ольницах, приходится на выходцев из Китая - 1.208.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Вьетнама, Филиппин, Монголии, Индонезии, Таиланда и других.

(RKI)

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ВЕЛИЧАЙШАЯ СДЕЛКА ВЕК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11)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считает, что Трампу, как и прежде, следует оказыва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КНДР, пока Пхеньян не пойдет к "полной и необратим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осл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 Трампом, принявшего решение о встрече с Ким Чон Ыном, Синдзо Абэ,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Kyodo News (13 марта), допустил возможность прям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он Ыном. Если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но пока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маловероятной),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намерен говорить о возвращении похищенных спецслужбами КНДР в 1970-е годы граждан Японии. Вряд ли Ким Чон Ыну нравится перспектива переговоров с Абэ по столь неудобному для Пхеньяна вопросу. Не исключено, однако, что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ернется сам к нему, но уже по соб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е, не запятнав при этом имя своего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в бытность котор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ецслужбы осуществили эту операцию.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я Ван И считает, что переговоры состоятся, но вряд ли Ким Чон Ын откажется от сво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тому как получить взамен то, что он хочет, будет весьма непрос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сс-службы МИД Китая Гэн Шуан сказал, что Китай «приветствует сделанные заявления о прямом диалоге между КНДР и США». При этом он добавил, что Китай всегда способствовал «процесс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выступал за мирное решение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отиворечий, предлагает ТАСС.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Сергей Лавров назвал шагом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 встрече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он Ыном.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ждет результатов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он Ыном, заявила верхов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ЕС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Федерика Могерини. По ее словам,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поддерживает полную и необратимую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неподтвержденным данным, оказалось, что делегация парламента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находилась в тайных ядер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трех лет. Это сенсационное сообщение последовало из уст британ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я Нирджа Девы вслед за новостью о том,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огласилс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он Ыном.

Когда и где?

Если на первый вопрос готов уже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определенный ответ – в мае, то есть через полтора – два месяца, если, опять-таки, не случится чего-нибудь непредвиденного, ответ на второй вопрос пока еще в тумане. Понятно пока лишь одно, что встреча не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ни в Вашингтоне, ни в Пхеньяне. Скорее всего, надо исключить из списка возможных мест встречи столицы Китая,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разумеется также Сеул никак не подойдет для этого саммита. Вообще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что Ким Чон Ын нарушит привычки деда и отца не оставлять страну без пригляда и ездить за границ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езидентам Ким Дэ Чжуну и Но Му Хёну пришлось отправиться в Пхеньян, ибо о визите Ким Чен Ира в Сеул и речи не могло быть. Как теперь поступит молод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вождь?

Скорее всего, встреча должна произойти в равноудаленном месте, значит получается в Европе, но учитывая близость отношений США со своими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ими союзниками, вряд ли Германия, Франция ил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подойдут для саммита. Для места встречи больше подойдут страны, проводящие ней-

тральную политику, возможно такой могла бы стать Швейцар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она знакома Ким Чон Ыну по его школьным годам. Скандинавские страны могут также попасть в шорт-лист места встречи.

Швеция уже выступил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еговоры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в своей столице - Стокгольм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тефан Левен считает, что его страна обладает достаточным уровнем доверия как у США, так и КНДР. В пользу Швеции играет также наличие ее посольства в Пхеньяне с начала 1970-х годов,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аммита. Агенство France-Presse сообщило 16 марта, что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и Юн Хо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Швеции Стефаном Левеном по проработке возможной встречи Ким Чо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хоже, что Москва озвучила свое пожелание выступить посредником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и неофициально, а устами своего эксперта по 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 профессора Георгия Толорая, который опубликовал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политологом, профессором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ША Лайлом Гольдштейном и замглавы Школы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ВГУ Артемом Лукиным в западных СМИ и веб-ресурсах стать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очему Трамп и Ким 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Why Trump Should Meet Kim in Vladivostok).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отсутствие вопросительного знака в заголовках материала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На сегодня предлагаются и предполагаются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по месту встречи, в том числе и Пхеньян, и Пханмунчжон и даже Вашингтон.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рты, предлагая Владивосток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встречи, вспоминают боязнь Ким Чен Ира летать самолетами, предпочитая передвигаться на короткие расстояния на бронепоезде или автомобиле. Пока категорических пожеланий места встречи не прозвучало ни из Пхеньяна, ни из Вашингтон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т протокольный вопрос будет решен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делка века: Cui prodest? (Лат. «Кому это выгодно»?)

Какая из сторон, и кто лично выйдет победителем от проведенных встреч в верхах? На мой взгляд, каждый из игроков этой новой большой игры рассчитывает получить главный куш и проигравших,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тогов саммитов, тоже не будет, так как сам факт того, что они состоялись, это уже само по себе достижение, маленькая коллективная победа на пути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встреч уже началось. Поэтому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я тоже подведу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 попытаюсь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предположениями.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обратный отсчет до начала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23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запуск таймер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показывать время, оставшееся до начала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этот день на нем высветилась цифра 323 дня.

Старт обратному отсчету дали гла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игр «Дети Азии» Дмитрий Глушко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церемонии они прибыл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комитетов стран Азии, ранее прибывших в регион. Гост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323 дня до стар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 это и много, и мало,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Глушко. – Олимпийские комитеты сегодня заняты вопросами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анд. Для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Бутан, Восточный Тимор, Шри-Ланка, Филиппины - первые зимние Игры на Сахалине, и это абсолютно новая история. На российском острове у них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олучить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зимних дисциплинах. Сахалин с учетом своего выгодн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для стран Азии очень интересен.

- Уверен, проведение столь значим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разв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Антон Зайцев.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портивные команды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на острове.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сборные и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другим масштабным состязаниям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в том числе и к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Напомним, игры «Дети Азии» с участием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большинства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проводятся каждые четыре года.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пропаганда идей О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развитие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спорта.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первые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и игр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в восьми зимних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х лыжах, сноуборде, биатлоне, лыжных гонках, прыжках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шорт-треке и хокке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енства,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а. В частност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работает лучш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де российские олимпийцы и паралимпийцы готовились к стартам в Южной Корее.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етей Азии» задействуют ледовые арены и 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объектам уже дали прибывшие в регион делегации глав нац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комитетов стран-участниц: Палестины, Сирии, Таджикистана, Таиланда, Филиппин, Шри-Ланки, Япо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Армении, Афганистана, России и ряда других. На этой неделе для гостей на острове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несколько семинаров-совещаний.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I зимних «Детях Ази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основные, но 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дисциплины. Среди них, к примеру, - «эстафета дружбы» в лыжных гонках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хоккею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мастерстве.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еминары для детских тренеров и судей.

- Это только пер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играм. Уже сейчас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ахалин выгод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воей компактностью, и все делегаты это отметили. В этом пла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м понравился больше, чем Корея и Япония. К тому ж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ес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лучше, чем на Олимпиаде в Рио, - рассказал по итогам одного из семинаров Дмитрий Глушко.

Заявки для участия в зимни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до 1 октября 2018 года. Каждая сборная с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84 спортсмена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Свое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же подтвердило 21 государство.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дут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45 команд) из стран Азии и ряда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тальные - участники официальных делег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и суд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Игры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более 600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удей, отвечающих требования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дераций по видам спорт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задействуют около 1 тысячи волонтеров.

Проводить игры такого уровн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на 2016-2020 годы», утвержденн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на Сахалине строятся десятк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Например,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регионе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коло 20 спортсооружений.

Совреме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Рассчитанное на 150 мест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лучило имя «Солнышко».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ему выбрали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Кунашир в ходе специаль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А право разреза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красную ленту отдали будущи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которых на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привели родители.

В новом детском саду откроют 6 групп для дошколят.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и группа раннего развития, куда родители смогут отдавать своих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полутора лет. Работу в учреждении получают 42 специалиста.

- В «Солнышке» есть свой бассей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инструктора дети уже в раннем возрасте могут учиться плавать.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ри этом они могут любоваться прекрасными видами вулкана Менделеева, на который выходят окна бассейн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им садом Алена Ветрова. – Новый садик имеет большие актовое и спортивное залы, оснащенные перед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и пищеблок, оранжевую, развивающие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доск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овому детскому саду дали и сами курильчане. У супругов Марины и Сергея Сокол сюда вскоре пойдут оба ребенка. Поэтому родители придирчиво и тщательно осматрели не только группы, но и различны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 Остались самые лучшие впечатления, будем рады водить детей в «Солнышко». Здесь абсолютно все новое – от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пищеблоке и медицинского кабинета до игрушек в группах. Здание большое, помещения просторные, внутри очень тепло, значит, ребятам будет хорошо и удобно,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от увиденного семья жителей Кунашира.

Поздравил курильчан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эра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округа Константин Бутаков.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ил он,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детского сада-школы на соседнем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ниж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ркотиков

Засед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антинарко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прове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Волошко.

Подводя результаты прошлогодней работы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езаконному обороту наркот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отметили 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моментов. Например,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ает снижаться количе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 на 1,8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6 годом. Уменьшилось число женщин-наркоманов. Во многом эта тенденция связана с увеличением доступности и улуч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а также с развитием системы реабилитации, как медицинской, так и социальной. Снижается и количеств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были замечены в употреблении наркотиков.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наркоманией среди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10-14 лет, как и в 2016 году, не 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 В это же время ситуация остается непростой, - отметил Антон Волошко. - На 20 процентов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Опрос сред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л: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считает, что достать наркотические вещества на островах не составляет труда. Это очень тревожный сигнал.

В 2017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ы оператив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акции «Сообща, где торгуют смертью», «Без наркотиков», «Дети России-2017». Островным учащимся прочитали более 3000 лекций, 570 раз сотрудники УВД выступали на родительских собраниях. Участники комиссии отметили,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искать новые действенные формы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В частно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а озвучена следующая инициатива - предостави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молод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благополучно пройдут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досмотры, нацеленные на выявл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ркотиков.

Необходим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работу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в том числе ту, которую проводят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ако, основную роль здесь должна играть наркологическая служба. Е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ущественно возрастут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в поселке Вахрушев, отметил в выступлени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лексей Пак.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утвердили проект доклада о наркоситу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определили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на текущий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тет добыча газа и угля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первые два меся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 151,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0,7 процен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ложился в размере 141,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0,2 процента.

Островные нефтяники добыли 3,1 миллиона тонн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Снижени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ачал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 0,1 процента. Добыча газа, напротив, выросла на 14,9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а 5,9 миллиарда кубометров.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уго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 1,4 миллиона тонн угля. Рост - в 2,5 раз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129,3 тысячи тонн, или 94,2 процента. Переработано 101,4 тысячи тонн, или 105,4 процент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сыров и творога, мяса и субпродуктов,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мясных,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области выпустило продукции на 0,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25,7 процент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 1,8 раза) и яиц (в 1,4 раза), молока (на 6,9 процента).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6,8 процента) и птицы (на 16,5 процента), поголовье свиней увеличилось вдвое.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одну корову вырос на 7,7 процента.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объемо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2,8 процента),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селению (на 1,7 процента). Обор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ырос на 20,4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составил 0,7 процента, что ниже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ы 2017 года на 0,2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Первый на Сахали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откроется в апреле

В поселке Вахрушев почти все готово для приема пациентов.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курс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для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смог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ходить двадцать человек.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с теми, кто только начал или начинает принимать наркотики, приз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нарко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людей, 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медицинскими мерами здесь не справиться, - сказал глава стра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антинарко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 Нужна последующая социальная реабилитация, возвращение к нормальной, полноценной жизни.

Поселок Вахрушев не случайно выбран местом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козависимых. Здесь, вдали от соблазнов больших городов,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поправить здоровье и избавиться от пагубных пристрастий.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разместили в окруженном лесом здании бывшей участковой больницы.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Заменяли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выполнили внутреннюю отделку, установил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 пищеблоке.

- Процесс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длительный, до полугода, - отмети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реабилитации Антон Манохин. - Поэтому для пациентов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палаты двухместные, в каждой туалет, душ.

- В нашем новом центре, который вскоре откроется в поселке Вахрушев, наши пациенты будут заново учиться нормально жить в обществе,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истов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психическое, физ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 пояснила медицинский психолог областного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Татьяна Грибанова. - Подходы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зные, в том числе,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работа с психологом. Будут и групповые программы. Важно совместное обсуждение чувств и эмоций, когда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е уже давно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ремисси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своих ощущениях людям, только вступающим на путь реабилитации.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е серьезная роль отведена трудотерапии и занятиям спортом. Поэтому около здания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а появится приусадебный участок, на котором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ациенты.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рудотерапии будут созданы и в здании, здесь выделены помещения под мастерские. Есть в центре и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укомплектованный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Преобразилось и здание, которое прежде занимала участковая больница,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поселка, сотрудница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Елена Яковченко. - Оно стало современным, выглядит, как новое.

- При наборе сотрудников мы отдаем приоритет жителям близлежащ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Анатолий Байдраков. – Нам звонят наркологи из раз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региона. Коллеги интересуются, когда откроется центр, они готовы направлять в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пациен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4월 2일부터 두 달간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초, 중고등부) 글짓기 작품 공모

20주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기록문학 활성화 위해 체험수기 부문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4월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 글짓기 부문이 진행되며, 총 상금규모는 3,530만원 이다.

올해는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기록문학을 활성화하고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20주년을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이 타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말과 정서를 지키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사용의 동기 부여를 위해 ‘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상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문학상이
2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한국시간기준
2018. 4. 2 TUE ~ 5. 31 THU

공모
자격

성인부문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부문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공모 불가
(우수상, 가작, 장려상 수상자는 응모 가능)

응모
분야
및
주제

성인부문 |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별안, 가족, 친지의 체험담을 진솔하게 그린 내용
청소년부문 | 중고등, 초등 글짓기
• 한국(미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체험담) 등

상당
내역

총 상금 3,530만원

*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작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 분들에게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www.korean.net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Tel. +82-2-3415-0097
E-mail. culture@okf.or.kr

주최

재외동포재단

주관

외교부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집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우리말로 깨닫다]

결혼(結婚)이란?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문가)

봄은 새로움의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좋은 일이지요. 결혼과 관련된 단어를 보면 대부분 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만 한 주제인 듯합니다. 한자를 보면 모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입니다. 결혼이라고 할 때 혼(婚)도 여자가 포함되어 있고 혼인이라고 할 때 인(姻)도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혼사(婚事)라고 할 때도 여성만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姓)을 나타낼 때도 여성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성(姓)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에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남자의 흔적은 없습니다. 예전의 중국 성을 봐도 여(女)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姜), 요(姚), 희(姬) 등이 모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주로 모계를 씨(氏)는 주로 부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은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이니 한쪽 성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결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끔 주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렵지만 설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깁니다. 평생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부부는 촌수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 무촌(無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생물학자나 인류학자는 종족 번식의 본능을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는 거겠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하하러 가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 역시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이 늘어납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점점 가족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결혼해서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기고,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깁니다. 형제, 자매도 늘어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쁜 아이들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결혼은 좋은데, 다른 가족이 생겨나는 것은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해 보니까 서로 조금씩 노력하면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차별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하늘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처럼 여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늘처럼 여기는 걸까요?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존경(尊敬)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더 찾아보면 존경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존경을 순우리말로 하면 '고마[敬]'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고맙다'입니다. 서로 고마워하면 서로를 하늘처럼 여기는 겁니다.

결혼은 좋은 겁니다. 결혼해서 좋은 점을 계속 찾아보세요. 결혼했더니 이런 점은 안 좋다는 말을 듣지 마세요. 틀린 말입니다. 더 노력해서 멋진 결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다른 분들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결혼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거라고.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궁중떡볶이

고추장이 주재료가 되는 새빨간 음식의 대명사인 떡볶이. 그러나 떡볶이가 원래부터 이런 매운 맛은 아니었다. 대장금 드라마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궁중 떡볶이는 쇠고기와 표고, 양파, 당근 등 고기와 채소, 떡을 함께 넣고 간장에 졸여 만든 음식이었다.

특히 쇠고기와 표고의 검정색, 양파의 흰색, 당근과 홍고추의 붉은색, 풋고추의 파랑색, 황백지단의 고명으로 노란색을 모두 갖춰 오행(五行)의 색으로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보하는 매우 과학적인 음식이었다.

우리엔겐 길거리 음식으로 더 친숙한 떡볶이는 원래 궁중에서만 먹던 '귀한 신분'이었다고 한다. 즉 요즘 말하는 궁중 떡볶이가 그 시작이다. 19세기 말엽 조선 말기의 요리책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궁중에서 흰떡, 등심살, 참기름, 간장, 파 등으로 만든 떡볶이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떡볶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00년대 말 조리서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궁중에서 흰떡과 등심살·참기름·간장·파·석이버섯·갓·깨소금 등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는 떡볶이라는 이름 대신 떡찜, 떡 잡채, 떡 전골 등으로 불리고 있다. 간장으로 양념을 한 떡볶이는 원래 파평 윤씨 종가의 음식으로 파평 윤씨 가문의 간장이 맛있는데 이를 활용해 소갈비 같은 재료를 넣어 간장으로 조리한 별식이었다. 이후 떡볶이라는 이름과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42년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으로 떡에 고기와 채소 등을 넣어 간장으로 만든다는 조리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가 흔해 고추장 떡볶이를 그냥 떡볶이라 부르고 간장으로 조리된 떡볶이를 우리는 간장떡볶이나 궁중떡볶이라고 부르는데 고추가 널리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궁중에서는 특히 매운맛이 사람을 흥분하게 해 정사를 돌봐야했던 왕에게 고추장으로 만든 음식은 수라상에 별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부재료는 차치하고라도 고추장을 쓰면 서민 떡볶이, 간장을 쓰면 고급 떡볶이가 되는 등식이 성립한다. 고추장과 간장의 위상이 나뉘어 지는 음식이 떡볶이인가보다. 이는 아마도 점잖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궁중떡볶이와 후후 불면서 콧등에 땀을 송송 맺히며 먹는 고추장떡볶이의 '먹는 방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품위 있게 먹느냐 주위 눈치 보지 않고 후후거리며 먹느냐의 차이. 그래서 시장 통 먹자 골목에는 거대한 후라이판에 별장계 떡볶이가 익어가도 궁중떡볶이는 찾아볼 수가 없다.

(코리안넷)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инимаются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ные в любой технике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живописи и графики. Положение доступно на сайте музеев.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mtmk.konkurs@mail.ru, сообщает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세계 보건의 날'을 주 일반도서관에서 기념

보건문제상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홍보하는 하는 목적으로 4월 7일 14시 주 도서관 소속 <우니베르살카>청년센터(하바롭스카야 거리, 78)에서 세계 보건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매년 이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핵심적인 보건문제들을 선정해 다양한 표어를 기치로 세워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보건 및 질병 예방과 관련된 물질들이다.

행사 중에는 <건강은 가장 큰 재산> 상호작용 활동이 이뤄진다. 이 활동에서는 개인위생, 건강한 음식 섭취법,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 체력단련이 미치는 영향 연구, 니코틴, 알콜, 마약 제품들이 호르몬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기존 상식을 확장시켜주며 체계화하도록 돕는다.

상호작용 놀이 후에는 <정상적으로 건강해지다>란 도서 전시회로 이어진다고 주 일반도서관 측은 전했다.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здоровья отметят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 целью пропаганды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привлечения внимания детей к проблеме сохранения здоровья 7 апреля в 14:00 в молодежном центре "Универсалка"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78) пройдет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здоровья. Каждый год этот день посвящается глоб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стоящим перед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и проходит под разными девизами. Та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тематика события связана с проблемой сохранения здоровь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ится интерактивная игра "Здоровье —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участие в которой поможет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расширить и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личной гигиеной, правилами здорового питания, изучением влияния физических упражнений на здоровье челове-

ка, а также с пагубным воздействием на организм никотина, алкоголя и наркот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интерактивной игры вниманию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обзор книжной выставки "Здоровым быть здорово",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Хомск 도서관원들, 독자들에게 <소네트(14 행 시)를 지어라> 시 창작 경연에 참가 제안

4월 20일 니콜라예브 홈스크시 도서관에서 <2018 도서의 밤>이 개최된다. 이 행사 일환으로 <소네트를 지어라> 시 창작 경연대회가 펼쳐진다고 공고되었다. 경연 참가자들에게는 시의 운율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참가자들의 작품은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서관 독서실, 대출실에서 접수가 이뤄지며 또는 이메일 a.abonement2016@yandex.ru로 접수가 가능하다.

4월 20일 '도서의 밤' 진행일에는 우승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우승자에 대한 시상상은 20시 도서관 독서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시 창작 경연과 소네트와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42433) 5-24-34전화로 타치아나 코쉴코쉴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Холмские библиотекари предлагают читателям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оэти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Сочини сонет"

20 апреля в холм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Николаева пройдет "Библионочь-2018".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объявлен поэтический конкурс "Сочини сонет". Задача, поставленная перед конкурсантами, непростая, потому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знать и понимать законы стихосложения.

Конкурсные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 23 марта по 15 апреля на абонементе, в читальном зале библиотеки (улица Советская, 124)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a.abonement2016@yandex.ru.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названы 20 апреля, в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Библионочи".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ится в 20 часов в читальном зале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Николаева.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конкурсе и требованиях к сонету желающие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8(42433) 5-24-34. Контактное лицо — Татьяна Кошкош.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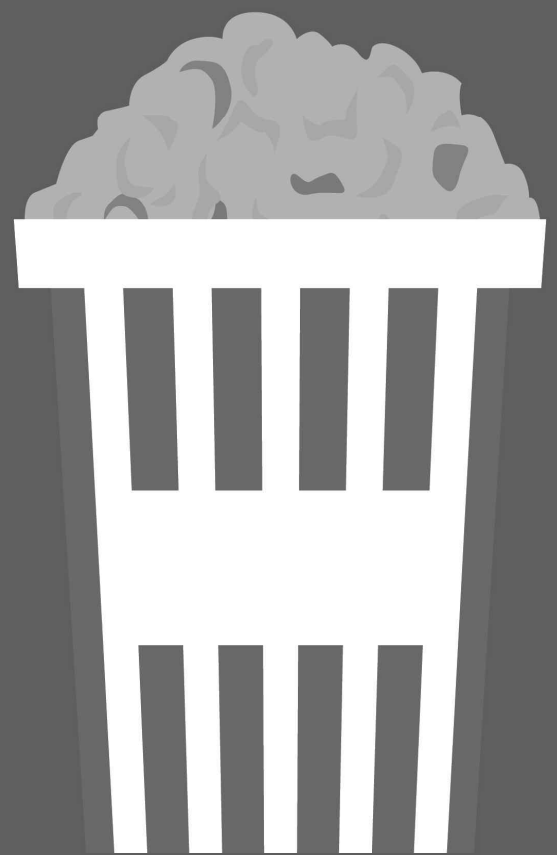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